

세한대 대학원 '호남 유일' 노인 전문 간호인력 양성

내년부터 '노인전문간호사 석사과정'...매주 토요일 수업 중소병원·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돌봄 통합적 역할 기대

세한대학교 대학원이 호남 유일 노인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22일 세한대학교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노인전문간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2025년 3월부터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영암에 소재한 세한대학교는 현직 간호사들의 접근성을 위해 매주 토요일 수업을 진행한다. 노인전문간호사는 의료법 제78조에 의거 면허간호사로서 간호사 경력 3년 이상을 갖추고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전문간호사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받는다. 자격을 취득한 노인전문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 간호사와 구분해 별도의 직무를 수행한다. 노인전문간호사의 구체적인 직무는 처치·주사 등 노인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다. 이밖에 ▲노인 전문 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

과 조정 ▲노인 전문 간호 분야 교육, 상담, 관리·연구 ▲노인질환 관리 및 건강 증진에 필요한 활동 등으로 정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2022-17)에 따르면 전남지역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17.5% 수준이며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다. 또 2050년 노인 인구 비중은 49.5%로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노인을 위한 보건의료서비

스 제공자로서 간호 인력 수요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세한대학교는 대학원 석사과정에 노인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신설해 전남 지역 특성에 기반한 중소병원 중심 노인전문간호사, 지역사회 중심 노인전문간호사 양성을 교육 목표로 제시했다. 중소병원 중심 노인전문간호사는 중소병원 근무 경력을 토대로 상급 수준의 노인전문간호를 제공하고 부족한 의료 인력을 대치할 수 있는 역할을, 지역사

회 중심 노인전문간호사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와 돌봄서비스의 통합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김은미 세한대 노인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전공(건강보건학부) 책임교수는 "배출된 노인전문간호사를 통해 중소병원 간호인력의 지속성이 개선되고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 돌봄 통합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대기자

동신대 '글로벌 역량' 강화...여름방학 해외연수 본격 추진

독일 등서 'K-culture' 홍보부터 유망기업 탐방·리더 캠프 등 다채

동신대학교가 여름방학 기간 재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독일,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등 각국을 방문하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

22일 동신대에 따르면 오는 8월 17-27일 9박11일 동안 공연예술무용학과 학생 14명이 네덜란드와 독일을 방문, 세계적인 댄스 대회에 참가하고 워크숍을 진행하는 등 K-culture를 세계에 알리며 글로벌 역량을 쌓을 계획이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는 '2024 Summer Dance Forever'는 세계적인 춤 전문가들이 모여 공연, 배틀, 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하는 국제 합작 댄스 축제다.

동신대 재학생들은 직접 공연에 참여할 예정이며 K-POP을 선도하는 예술적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국제적 인재를 한층 더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글로벌 리더로서의 성장을 돕는



동신대학교 재학생들이 지난 6-17일 독일,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등을 방문하는 유럽 학술장학생 하계 해외연수에 참여한 가운데 독일 레지던트 박물관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동신대학교 제공>

'DS 글로벌 리더 캠프'도 개최된다. 동신대 LINC30사업단 주관으로 재학생 50명이 학생지도관리자 6명과 함께 8월 20-28일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방문, 해외 유망 기업을 탐방하고 상생 협력 비전과 글로벌 마인드를 키운다. 오는 2025년 1월에는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현지 의료기관 탐방 및 실습을 위

한 네덜란드 연수가 계획돼 있다. 한의학과, 간호학과 학생들이 전문어학과정과 글로벌한 실습 과정을 통해 바이오 분야 글로벌 학습 기회를 갖게 된다. 앞서 지난 6-17일 12일간 재학생 25명은 독일,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등 각국 문화를 직접 느끼는 유럽 학술장학생 하계 해외연수를 다녀

왔다. 역사·문화 유적지를 찾아보고 자료를 조사하는 등 스스로 탐방 일정을 수립했으며 현지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문화, 풍습, 언어 체험 등 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통해 자기 계발과 리더십을 높였다. 김채린(한의학과 2학년)씨는 "폴리

트비체 트래킹, 자다르 보트투어, 뮌헨의 레지던트 박물관 등 각국의 다양한 명소를 둘러보며 풍부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며 "직접 탐방 일정을 세우면서 발간 반도의 역사나 건축양식의 유래 등 각국 문화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여다 볼 수 있어 의미 있었다"고 말했다. /김대기자

동강대, 디지털콘텐츠 전문 디자이너 육성

작년 전국 첫 '일학습병행 디자인 과정' 개설

동강대학교가 전국 최초로 개설된 고속원 일학습병행(P-TECH) 훈련 과정을 통해 광주·전남지역 디지털콘텐츠 전문 디자이너를 양성하고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22일 동강대학교에 따르면 최근 일학습병행사업단이 전자공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콘텐츠디자인과 일학

습병행 원데이 스쿨'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동강대가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앞두고 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국내 유일의 디자인 계열 고속원 일학습병행과정을 소개하고 다양한 인프라 체험을 통해 디지털디자인 전문인력으로 커 나갈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마련했다. 동강대는 원데이 스쿨에 참여한 전

자공고 학생들에게 디자인 전공 특강을 비롯해 디지털미디어 체험, 참여 기업 소개, 포트폴리오 면접 취업 역량 강화 등 관련 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전달했다. 특히 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된 K-콘텐츠 특강과 미디어 스트리밍 체험, 인터랙티브(interactive) 영상제작 실습 등은 참여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동강대는 지난해 고속원 일학습병행 과정으로는 국내 최초로 디자인 분야 승인을 받았다. 디지털콘텐츠디자인과를 신설해 모체학과인 미디어콘텐츠과의 영상제작 인프라를 기반으로 웹·앱 UX/UI 디자인을 양성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했다. /김대기자

전남 학교현장 체감 '교육활동 보호' 강화

도교육청, 변호사 등 실제적 지원 구축

전남도교육청은 22일 "학교 현장에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전담 변호사 및 상담사를 배치하고, 피해 교원 법률 상담 및 심리적 회복 지원 등에 힘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전남도의회, 노조단체, 학부모 등이 참여한 '교육활동 보호 대책 수립을 위한 TF'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활동보호 대책을 마련했다.

교육활동 보호 핵심은 교육활동보호센터 강화로 피해 교원 지원 확대, 특이민원 대응체계 구축, 교육활동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학교 교육지원청 지원 강화다.

세부 내용으로는 ▲교육활동 보호 전담 변호사 및 상담사 배치 ▲피해 교원 법률상담 및 심리적 회복 지원 확대 ▲학교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지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지원 등이다.

특히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특이민원 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민원면담실 지정·구축, 녹음가능한 전화기 및 통화연결음 서비스를 지원해 교원들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직선 4기 하반기에는 학교 현장과 소통을 강화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제도가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상호 존중·신뢰를 기반으로 한 학교공동체를 만드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김호범 학생생활교육과장은 "현장 교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실제적 지원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기자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제조 및 A/S 문의 1544-1154